

## 한국어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miliarity and Appropriateness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장혜진<sup>1</sup> · 김영근<sup>2†</sup>

Hyejin Jang<sup>1</sup> · Youngkeun Kim<sup>2†</sup>

### Abstract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ppropriate words from the list of words in the relationship. All vocabularies that are unfamiliar-but capable of guessing the meaning and express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were collected from three Korean dictionaries. Consequently, a compilation of 2,725 words was created; overlapping words were selected; and 910 words were chosen. Only grammatical forms were found; however, words with similar meanings-or identical meanings-were also found, and a reclassification process was required to reflect this. These procedures were repeated seven times, resulting in a total of 249 words being screened.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the number of words needs to be reduced because the meaning of words is more specific and summarized, and the overall interpersonal aspect is well expressed. Therefore, the process of reclassifying 249 words by their familiarity and appropriateness was subsequently undertaken, and the word with the highest level of familiarity and appropriateness was finally selected.

**Key words:**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personal Words, Familiarity, Appropriateness

###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 첫 과정으로서 대인관계 단어 목록에 포함시킬 적절한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생소하지만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고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어휘를 3종의 국어사전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2,725개의 단어로 구성된 대인관계 단어 총집을 제작하였고, 중복되는 단어를 선별하여 총 91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문법적인 형태가 다를 뿐, 의미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단어가 발견되어 이를 반영한 재분류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총 7회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49개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한편, 대표 단어 도구를 개발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단어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고 집약되어 전체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하나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구성이 필요하므로, 단어의 수를 축약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단어 선별의 마지막 단계로, 앞서 추출한 총 249개의 대인관계 단어에 대한 친숙성과 적절성 평가에 따라 재선별하는 절차를 수행한 후, 친숙성과 적절성의 평정치 결과가 서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주제어:** 대인관계, 대인관계 단어, 친숙성, 적절성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2004).

<sup>1</sup> 장혜진: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소비자·가족학과 강사

<sup>2†</sup> (교신저자) 김영근: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 / E-mail : ykkim@inje.ac.kr / TEL : 055-320-4024

## 1. 서론

인간은 출생 시부터 사회적 존재라고 불리우는 만큼, 전 생애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Kwon, 2004).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관계의 질에 따라 개인의 적응은 물론 독특한 정체감 형성과 바람직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Gazda, 1973). 실제로,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Choi, 2011; Kim & Kim, 2020; Kim & Na, 2017), 대인관계문제(Choi & Ju, 2020; Heo & Rhee, 2017), 삶의 만족(Kyung & Tak, 2019; Lim et al., 2014), 대인관계 척도(Chung, 2004; Kim et al., 2012), 대인관계능력(Kim, 2012; Oh et al., 2013) 등의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다루어지고 있다. 연구들에서는 대인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만족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수록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슬픔, 우울, 절망 등의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위축된다는 점을 보고한다(Fung & Yeung, 2009; Kwon, 2004). 이처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심리적 안녕감을 비롯한 인격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고 사회적 적응을 도와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상호작용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어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데(Jang, 2005), 의견상 대인관계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 예컨대 개인의 정서, 성격, 적응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을 배후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Chung, 2004; Kim & Park, 2010).

이처럼, 대인관계는 타인에 대해 인식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으로, 정서와 성격 그리고 행위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다(Heider, 1958). 정서는 대인 간 의사소통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요 요인이므로 정서를 얼마나 자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대인관계의 질이 달라진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잘 표현할수록 타인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Emonns & Colby, 1995; Kim & Kim, 2015),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하고 신경증을 유발하며 대인 간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Salovey & Mayer, 1990). 이러한 정서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상황 및 환경에 반응하려는 생득적인 반응으로 내면화하거나 표출되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Frijda, 1986).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에 중요한 요소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격으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적응을 나타내는 정서와 행동의 역동적 조직이다(Allport, 1937). Allport(1937)에 따르면, 성격에 따라 정서 체계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환경에 대한 적응 즉, 대인관계의 차이를 결정한다. 또한, 성격은 정서에 민감하고 접근/회피 행동에서 다양하게 작용한다(Gray, 1987). 이와 관련하여 Rosers(1951)는 대인관계는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관계의 주체자가 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 정서, 태도, 생각, 가치관, 대인관계의 양과 질, 성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Lange & Jakubowski(1976), Rakos & Schroeder(1980)에 의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잘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대인관계 행동은 소극적 행동, 주장적 행동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소극적 혹은 공격적 행위는 대인관계와 관계된 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행동적 원인, 비합리적 사고와 관련된 인지적 원인, 두려움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원인으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개인 내의 정서, 성격, 행위 간에 조화로운 관련을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

한 상호관계의 역동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논리적이고 심층적인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탐색할 수 있다면, 새로운 관점과 사고를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Heider, 1958).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대인관계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발견된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그와 관련된 대인관계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 중심적 방법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갈등을 강조하여 교육에 의해 제시된 내용을 수동적으로 따르도록 한다(Sharry, 2007).

한편, 대인관계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주로 문항 중심의 척도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척도로 국외에서는 Schlein et al.(1971)이 7개의 하위 영역(만족감, 신뢰감, 민감성, 의사소통, 이해성, 개방성, 친근감)을 통해 개인의 대인관계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대인관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와 Horowitz et al.(1988)의 대인관계문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가 있다. 또한, Leary(1957)가 Sullivan의 영향을 받아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과 지배-순종의 ‘통제’ 차원으로 이루어진 평면 위에 대인관계 행동을 원형으로 배열한 대인관계 원형 모델이 있으며, 이에 근거를 두고 Wiggins et al.(1988)이 대인관계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제작한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R: IAS-R)가 있다. 국내에서는 Yun(1975)의 대인관계 지향성 이론을 토대로 제작된 대인관계 태도 유형 척도와 Ahn(1985)이 Leary(1957), Krech et al.(1962)과 Schutz(1958)의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한 대인관계 성향 검사, Kim et al.(2012)의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 등이 있다. 이러한 척도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 있어 문제 증상의 개선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전체적인 기능의 호전 수준을 확인하는 임상적 유의성의 평가를 가능케 한다(Lee & Lee, 2014). 또한, 대인관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평정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주로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거나 수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약이 많다.

또한, 개인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측면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으나 이를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특성이 어떠한지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즉, 대인관계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정서와 같은 내면적 특성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는 주지 못하고 있다(Kim & Park, 2010). 이는 각 문항을 통해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검사자 개인의 반응에 대해 평정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대인관계 경험을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다루기보다 평정 결과만으로 파악되는 전체적인 대인관계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다양한 대인관계 단어들을 제시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구성 개념을 다루는 데 보다 충실하다. 특히, 대인관계를 설명하고자 기존의 척도에서 단어를 선별할 경우, 오히려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마다 적절한 단어를 다시 도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시간과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불편하고 비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대인관계는 상호 간의 어떤 특징적인 심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삶이 계속되는 동안 인간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상호작용이라도 여러 문화권에 따라 이를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며, 번역 내용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Hahn & Kang, 2000). 다시 말해, 단어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일관성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Park & Min, 2005),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적합한 단어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 선별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Jang & Kim, 2020).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제약은 친숙성이나 적절성이 높은 중요한 어휘가 누락되거나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어휘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단어를 선별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Plutchik, 2003).

이처럼 언어가 다양성과 포괄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Min & Koo, 2002), 자극의 형태가 단어라는 특성 상,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을 조작하기 용이하면서도 엄격한 통제 하에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다(Hong et al., 2016).

Goldberg(1990)의 기본 어휘 가설(fundamental lexical hypothesis)에 따르면, 인간의 관계적 삶에서의 중요한 개인 간 차이는 대부분의 언어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어휘에서 비롯되므로, 성격 뿐 아니라 정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인관계가 이러한 요인들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할 때, 대인관계 단어를 선정하는 작업은 이와 같은 기본 어휘 가설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어의 어휘로 구성된 검사는 대인관계문제 척도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아닌 ‘특성’을 평가하여 검사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면서 보다 간편하게 실시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Chung, 2005). 따라서 대인관계의 경험과 그 가운데 발생하는 개인의 내적 상태나 행동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인관계 문제나 측정 과정 등의 경험적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의 민감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요구되는 점이기도 하다(Chung, 2004).

그러나 개인의 대인관계 상태나 호소 문제를 나타내는 어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제시 가능한 단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대인관계 연구는 대개 문항 중심의 척도를 활용함에 따라 단어를 활용한 도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대인관계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개인의 대인관계 성향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닌, 대인관계가 어떠한 내적 특성과 반응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과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대인관계 단어 총집을 만든 후, 각 단어가 나타내는 대인관계 단어로서의 친숙성과 적절성에 관한 자료를 얻고 일련의 선별 과정을 통해 최종 대인관계 단어를 선정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 2.1. 대표 대인관계 단어 도구 개발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만들기 위한 첫 과정으로써,

먼저 대인관계 단어 목록에 포함시킬 적절한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단어 수집 및 선별 과정 동안 ‘중복없이 그리고 빠짐없이(exclusive and exhaustive)’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대인관계 단어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는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선별하는 것으로, 단어 수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어의 누락과 중복 등의 문제점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Seo et al. (1998) 또한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학습자의 요구 사항으로 ‘언어 사실에 근거하고 그 근거가 명백할 것,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 기대 수준이 다르므로 이에 대응할 것, 양적으로 충분할 것, 경제적인 적정성이 확보될 것, 사용 및 관리가 용이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어 본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단어 선정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 대인관계 단어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 2.1.1. 대인관계 단어 총집 구성

본 연구에서는 3종의 국어사전으로부터 발췌한 대인관계 단어들에 기반하여 대인관계 단어 총집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단어 도구의 개발은 주로 정서 어휘에 관한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또한 문항 구성의 대인관계 척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인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도구의 개발을 비롯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써 국어사전에서 대인관계 단어를 수집한다면, 다양한 단어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총집 구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정서 단어 도구를 개발한 Jang & Kim(2020)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단어들은 특정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Jang & Kim(2020)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어사전에서 자료를 수집한 일부 선행연구(Ahn et al., 1993)로부터 단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 다양한 국어사전에 기초하여 단어를 수집하는 것은 단어의 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대인관계 단어 총집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표 대인관계 단어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국어사전의 단어들 중 생소하지만 의미를 미루어 생각해볼 수 있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로서,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어휘를 수집하였다. 그 가운데,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정서, 성격, 행위가 서로 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를 포함시켰다. 이는 Chung(2004)이 Wiggins et al.(1988)의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근거하여 문항을 번역하고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Hahn(1992)의 성격 용어와 Hahn & Kang(2000)의 정서 용어 중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적절한 절차라고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자가 3종의 국어사전에서 수집한 어휘들을 대조 및 통합하여 얻은 대인관계 단어 총집은 총 2,725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중복되는 단어가 대거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선별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총 91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 2.1.2. 주요 대인관계 단어 목록 구성: 249개

앞서 진행된 대인관계 단어의 총집 구성 과정에서 선별한 단어는 총 910개이다. 한편, 그 중에서도 문법적인 형태가 다를 뿐, 의미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단어가 발견되어 이를 반영한 재분류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대인관계 단어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양상에 따라 상이한 어휘가 서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 및 관련된 상황적 맥락을 구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Yi,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하여 대인관계 단어를 검토하고 재구성하였다. 대인관계를 비중있게 다루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상담학 교수 1인 및 국문학 전공자 1인이 동시 참여한 선별 작업을 통해 대인관계 단어로 보기에 적절치 않은 단어가 포함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신중하고 일관된 과정에서의 단어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투리는 표준어로 변경하였다. 둘째,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는 사회를 비롯

한 시대가 요구하는 전형적이고 바람직한 어휘의 수준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대신 이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선별하였다. 셋째, 의미가 가장 유사한 단어들은 동일하게 다루어 하나로 통합하였다. 넷째, ‘뜻이 맞다’, ‘손을 끊다’ 등의 동사구는 제외하고 동사 혹은 형용사만을 취하였다. 단, 다른 품사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명사의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말에서 용언을 이루는 품사가 동사와 형용사임을 고려한 것이다. 다섯째, ‘부담되다’를 ‘부담하다’와 같이 능동태로 변경 시, 본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족스럽다’를 ‘만족하다’로 바꾸듯이 수동태의 구조로 된 용어는 능동태로 변경하였다. 여섯째, 선별된 단어는 모두 명사나 동명사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일곱째, 고어나 전문 용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지 않은 낯선 단어를 제외하고 보다 익숙한 단어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총 7회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49개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 2.2.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 적절성 평정

대표성을 띤 대인관계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단어 목록을 다시 정리하여 보다 익숙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단어들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신중하게 선별한 단어 일지라도 다른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대인관계 단어로서 얼마나 적절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사용하는 빈도가 서로 달라 생소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유사한 단어가 있을 수 있다(Hahn & Kang, 2000). 이는 최종 선정된 대표 단어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으며, 대인관계 단어로서 적절성과 경험 빈도를 나타내는 친숙성이 서로 독립된 양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선별된 249개의 단어 수 자체가 다양한 대인관계 단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단어 목록으로 사용하기에 장점이 있으나 대표 단어 도구를 개발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단어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고 집약되어 전체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하나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구성이 필요하므로, 단어의 수를

축약시킬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단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비교적 단어 도구 개발에 활성화를 띄고 있는 정서 단어에 관한 선행연구들(Ahn et al., 1993; Lee & Lee, 1990; Jang & Kim, 2020)을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한 단어가 100개 내외인 점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절차는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후 선별된 대인관계 단어의 구성 체계가 타당성과 객관성을 안정적으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대표 단어 목록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단어의 분포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유사성에 따른 단어 분류 작업이 요구되는데, 연구 참가자가 249개의 단어를 분류하기에는 물리적·시간적·심리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축약시킬 필요가 있다(Jang & Kim, 2020).

그러나 249개의 단어로는 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의 분석 가능한 변인의 수를 초과하여 실행이 불가능하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부만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성에 따라 단어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성을 띤 단어 배치의 양상을 보여줄 수 없다(Park & Chung, 1998).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고 친숙하며, 다양한 연령 집단에서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표 단어 도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경험하는 대인관계 단어를 선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어 선별의 마지막 단계로, 앞서 추출한 총 249개의 대인관계 단어에 대한 적절성과 친숙성 평가에 따라 재선별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대인관계 단어로서의 친숙성이란 제시된 단어를 평소 대인관계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수준을, 적절성은 제시된 단어가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수준을 나타낸다. 단어가 지닌 친숙성과 적절성의 측정치는 연구 목적에 따라 평점 수준을 정하여 단어를 선별할 수 있는 동시에 단어의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에 의한 대인관계 단어의 선별과 일반인들에 의한 친숙성 및 적절성 측정의 이원적 접근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이면서 심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ark & Min, 2005). 이

에 249개 단어 중, 친숙성과 적절성의 평정치 결과로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 2.3. 연구대상

6개 행정구역에 소재중인 20대, 30대, 40대, 50대의 남녀 450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모집되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대인관계 연구가 주로 대학생에 국한되어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연령 집단의 성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대학생을 비롯한 그 외 일반 성인들 역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Bae, 2015; Lee & Joeng, 2020). 한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한 일반인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참가자를 균등하게 선별하였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INJE 2020-11-025-001) 절차를 거친 후에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Division		N	Rate (%)
Gender	Male	225	50
	Female	225	50
Age	20~29	113	25.1
	30~39	113	25.1
	40~49	113	25.1
	50~59	111	24.7
Area	Seoul	76	16.9
	Gyeonggi/Gangwon	75	16.7
	Chungcheong	75	16.7
	Honam	74	16.4
	Gyeongbuk	75	16.7
	Gyeongnam	75	16.7
Total		450	100.0

## 2.4. 연구절차

친숙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기 전, 모든 연구 대상에게 미리 제작한 지시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지시문에는 각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련 예시가 제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249개의 대인관계 단어에 대한 적합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 2.5. 연구도구

국내에 아직 어휘의 친숙성 및 적절성에 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를 측정하고자 Averill(1975)의 단어 선별 방식을 활용하였다. Averill은 대표 대인관계 단어 목록을 만들기 위해 Allport & Odbert(1936)가 사전에서 선별한 18,000개의 성격 단어 중, 정서 용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717개의 단어를 선별한 다음, 대학생들에게 정서성과 친숙성을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단어에 대해 “전혀 정서를 나타내지 않는다”(1점)부터 “분명히 정서를 나타낸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535개의 단어 목록을 제작하였다. 이는 Bush(1972)와 Ahn et al.(1993)의 연구에서도 사용한 방식으로,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단어 목록을 제시하고 각 단어가 신체, 성격, 정서 상태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후, 적절한 정서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1부 당, 249

개의 단어가 제시된 2부의 설문지를 통해 친숙성과 적절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친숙성의 경우, 7점 Likert 척도를 통해 각 단어가 대인관계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친숙하게 느끼는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사용한다”(7점)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적절성 또한, 각 단어가 대인관계를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내는지를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적절하다”(7점)의 7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개인이 친숙성과 적절성을 모두 측정하는 데 평균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3. 연구 결과

### 3.1.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친숙성의 평균값 범위는 2.52(공갈하다)부터 5.92(고맙다)였으며, 적절성의 평균값 범위는 2.89(공갈하다)부터 5.92(고맙다)로 나타났다. 친숙성의 평균값은 ‘공갈하다’, ‘후박하다’, ‘동무하다’, ‘낙인찍다’, ‘불화하다’, ‘부조화하다’ 등의 단어가 가장 낮았으며, ‘고맙다’, ‘좋아하다’, ‘친하다’, ‘반갑다’, ‘친절하다’, ‘보고싶다’ 등의 단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 Fig. 2, Fig. 3). 한편, 적절성의 평균값으로는 ‘공갈하다’, ‘낙인찍다’, ‘후박하다’, ‘넘어뜨리다’, ‘뜯어먹다’, ‘뜯기다’ 등이 가장 낮은 반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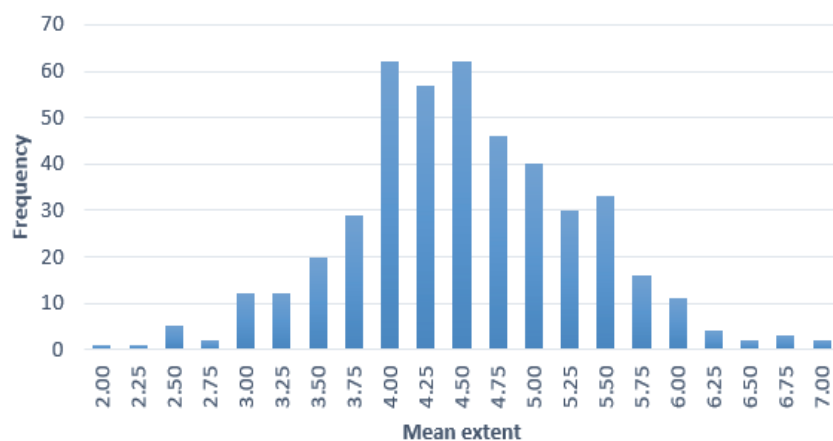


Fig. 1. Familiarity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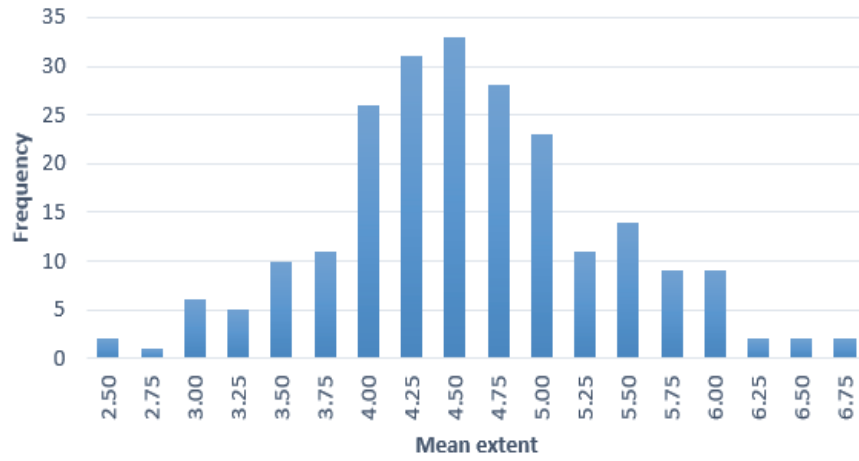


Fig. 2. Familiarity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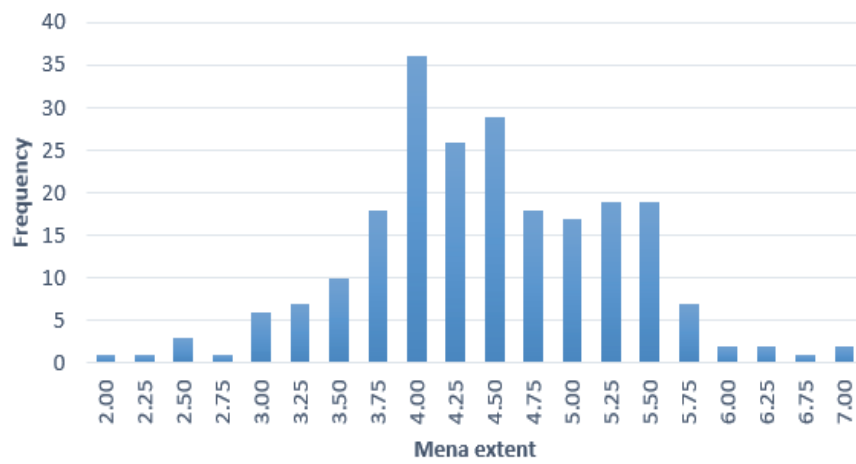


Fig. 3. Familiarity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Fem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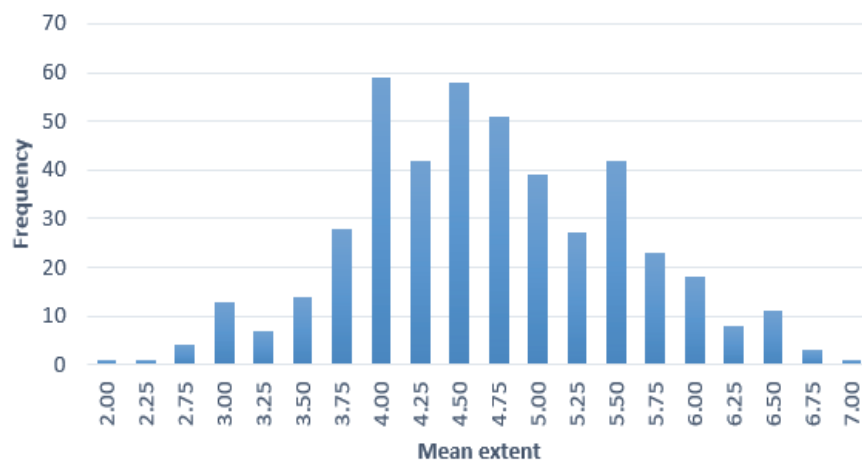


Fig. 4. Appropriateness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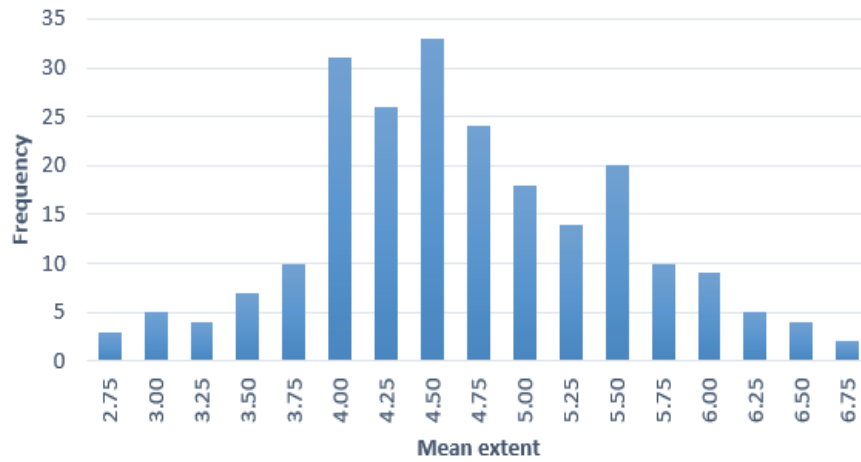


Fig. 5. Appropriateness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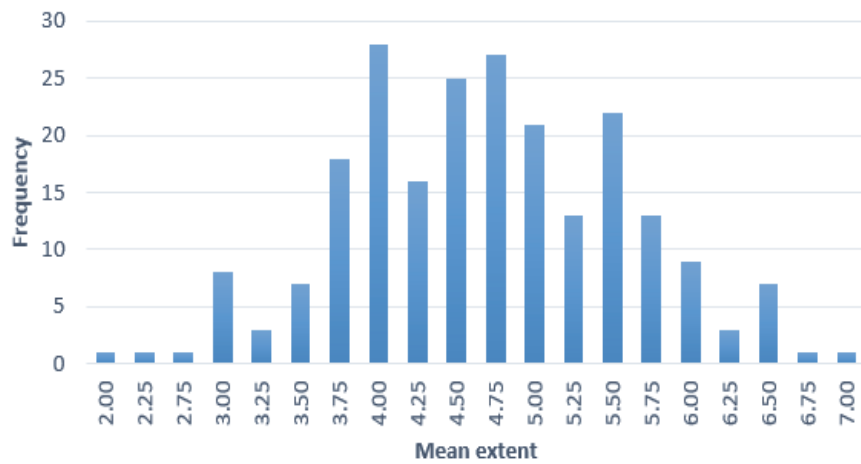


Fig. 6. Appropriateness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Female)

Table 2. The range of familiarity, appropriateness of interpersonal words

Division	1 ~ 1.99	2 ~ 2.99	3 ~ 3.99	4 ~ 4.99	5 ~ 5.99	6 ~ 6.99
Familiarity		8(3.2)	63(25.3)	118(47.4)	60(24.1)	
Appropriateness		1(0.4)	49(20)	131(52.6)	68(27)	

‘고맙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보고싶다’, ‘사이좋다’, ‘반갑다’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Fig. 5, Fig. 6). 전반적으로 친숙성과 적절성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단어들은 부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어들은 정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친숙성과 적절성 평정치의 범위에 따른 단어들의 빈도와 비율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 3.2.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 간의 관계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249개 단어에 대한 친숙성과 적절성의 평균치들을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75, p<.01$ ).

### 3.3.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의 성별 차이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 평정치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단어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의 친숙성과 적절성을 평정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단어의 수가 적다.

먼저, 친숙성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49개 단어 중 107개(43%)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남성의 평정치 평균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단어는 70개(28%)이며, 여성의 평정치 평균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단어는 37개(15%)이다. 친숙성에서는 남성이 ‘거느리다’, ‘넘어뜨리다’, ‘담쌓다’, ‘맞서다’, ‘무자비하다’, ‘배척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복종하다’, ‘사이좋다’, ‘살갑다’, ‘자상하다’, ‘좋아하다’, ‘터놓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적절성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49개 단어 중 63개(25%)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남성의 평정치 평균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단어는 17개(7%)이며, 여성의 평정치 평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단어는 46개(18%)이다. 적절성에서는 남성이 ‘가소롭다’, ‘거느리다’, ‘업신여기다’, ‘역겹다’, ‘저항하다’, ‘치열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공감하다’, ‘단란하다’,

‘배려하다’, ‘살갑다’, ‘친하다’, ‘함께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성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단어들은 부록에 제시한 표에 \* 표시를 하였다.

### 3.4.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의 연령별 차이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 평정치에서의 연령차를 분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단어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친숙성에서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49개 단어 중 82개(33%)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30대가 35개(14%)의 단어에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평정치 평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0대가 31개(12%), 50대가 14개(6%), 40대가 2개(1%)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나쁘다’, ‘다투다’, ‘미워하다’, ‘불편하다’, ‘어색하다’, ‘지겹다’ 등의 단어에서, 20대는

‘걱정하다’, ‘귀찮다’, ‘떨어지다’, ‘사귀다’, ‘설레다’, ‘실망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0대는 ‘가없다’, ‘권태롭다’, ‘의 좋다’, ‘포용하다’, ‘화합하다’, ‘후박하다’ 등의 단어에서, 40대는 ‘가정적이다’, ‘애처롭다’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적절성에서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49개 단어 중 94개(38%)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20대가 52개(21%)의 단어에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평정치 평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30대가 39개(16%), 50대가 2개(1%), 40대가 1개(0.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꼴스럽다’, ‘떨어지다’, ‘보기 싫다’, ‘실망하다’, ‘질투하다’, ‘협오하다’ 등의 단어에서, 30대는 ‘귀찮다’, ‘그립다’, ‘데면데면하다’, ‘싫다’, ‘월망하다’, ‘피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0대는 ‘칭찬하다’, ‘평화롭다’의 단어에서, 40대는 ‘가정적이다’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3.5.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의 지역별 차이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 평정치에서의 지역차를 분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 결론

대표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 단어에 대해 대인관계 단어로서의 친숙성과 적절성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대인관계 단어 목록에 포함된 단어들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고(친숙성)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대인관계를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내는지(적절성)를 측정하였다. 친숙성과 적절성 평정에서는 매우 낮거나(2.0 미만) 매우 높은(6.0 이상) 단어는 모두 없었고, 중간(3.0~6.0 미만)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보고가 다양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정서 단어 목록 개발 과정에서 전형성을 측정한 Lee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측정 범위가 3.09(교감하다)부터 4.65(슬프다)임을 보고하였으며, Park & Min(2005)의 연구에서는 원형성과 친숙성의 평균치가 중간(3.0~6.0 미만)에 해당하는 단어가 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단어 총집을 구성하고 주요 단어를 선별하기까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고 일상생활에서 친숙하다고 판단된 단어를 선정하는 절차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을 각각 평정해서 얻은 평균치로부터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친숙성과 적절성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친숙성과 적절성에 사용된 249개의 단어가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친숙한 단어일수록 대인관계 단어로서의 정확한 의미 또한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현상은 해당 단어들이 남성과 여성 간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은 대인관계에서 ‘경쟁/지배’의 특성이 뚜렷하게 발견되었고, 여성은 ‘친밀/애정’의 특성이 발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에게 친숙한 상황과 관련된 단어의 의미 또한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더 분화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더 잘 구분한다(Lee et al., 2008). Row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도구적 관계의 특성을 갖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상이 다름을 보고하였다. Baumeister & Sommer(1997) 또한 남성은 집단적인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는 주도적 특성(경쟁적, 지배적, 공격적)을, 여성은 관계적인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는 친교적 특성을 강조한다고 보고 있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성별이나 사회적 맥락 등에 따라 관계의 표현과 양상, 그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 즉,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Beck, 2000).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과정과 통합되면서 개인의 자기(self) 역시 형성하게 된다. 즉, 자기는 개인 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개인 간의

상황에서 존재한다(Cho & Bang, 2007).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한 Mead(1934)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따르면, 인간은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의 자기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즉, 인간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의미인 자기를 만들어간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자율에 의해 행동을 선택하는 주체적 자기와 타인의 조직화된 태도가 내면화된 사회적 자기와 관련되므로, 개인을 발전시키는 것은 집단과 사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 행동을 지속시킬 것인지 결정된다.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측면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독립적인 자기해석을 하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Cross et al., 2002). 남성과 여성은 모두 소속의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사회적 연결을 중요시하여 관계를 지향하며, 사회적 연결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둔다(Baumeister & Sommer, 1997; Gardner & Gabriel, 2003). 사회 또한 이들에게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높은 지위에 도달하고자 보다 큰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선호하고, 여성은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자기개념 구조와 해석의 차이는 남성이 본인의 직업적인 성취와 관련하여 더욱 행복감을 지각하고, 여성이 자녀의 행복과 성취 등의 요인과 같은 보다 가정적이고 관계적이며 집단적인 측면에서 행복감을 인식한다(Park & Kim, 2011)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남녀의 사회화 과정과 역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이며 관계지향적인 문화권에 속한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과 집단의 규칙 및 규범을 강조하는 문화인 것이다(Hofstede, 1991).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구에 적합한 양상을 보일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많은 반면, 자율성이 높으면 문화적 요구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부정적 정서를 더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주의나 자율성을 덜 강조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발달을 더욱

중요시 여긴다(Gilligan, 1993). 이와 관련하여, Kim et al.(2001)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인생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 이른바 삶의 목적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는 믿음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삶에 대한 변화 의지와 같은 개인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밝혀져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서도 두드러지는 특성이 발견되었는데, 20대는 ‘혼란’, 30대는 ‘갈등’, 40~50대는 ‘권태/관용’으로 대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 구성원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행동 규범이 있다. 개인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구성하게 된다(Kim & Han, 1997).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를 잘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남녀 모두가 살아가면서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하기는 하나 시대적·문화적으로 남녀가 처한 환경 및 상황이 상대적으로 다름으로 인해 비롯된 고유한 특성임을 보여준다. 둘째, 인간의 적응 가치에 따라 발달된 정서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인관계는 정서, 성격, 행위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맺는 가운데,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중요한 상황에 대해 불쾌감이나 두려움 혹은 욕구 불만을 경험할 경우, 개인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방어하고자 한다. 이때, 정서는 그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갖도록 기능한다(Park et al., 2008; Roseman, 1984). 이 역시 성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맥락 속에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장과 역할 및 목표가 달라 나타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삶의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이때의 상호작용 방식은 서로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규정되며 나아가 문화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Fiske, 1992).

젊은 세대의 경우, 자기 수용과 개인적 성장 및 환경

통제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Kim & Kim, 2000; Kim et al., 2001). 이러한 관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경쟁을 통해 성공해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개인주의가 급격하게 성행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는 기술이 발달하여 자원이 풍부하고 부유하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로, 이에 20~30대가 해당된다. 20~30대의 성인은 가정과 학교에서 전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던 청소년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애 단계인 청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전보다 더욱 확장된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가장 활발하고,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동시에 가정을 형성하는 일이 강조되어 독립성 획득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Erikson, 1994; Lothaller, 2010). 따라서 이들의 불안감과 중압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으며(Kim, 2016), 대인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여 불안, 갈등,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이는 곧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발생시킨다(Kwon, 2018). 특히, 이들은 최근 경제 악화와 취업난 등이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청년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험난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동아일보 2020 행복원정대의 조사(2017.4.4.)에 따르면, 청년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쟁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지만 정작 오프라인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기피하고 우울해하는 경향이 높다. 관계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시해야 할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 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행복 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문제와 관련성이 높다. 이 시기에 강조되는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의 확립은 삶의 목표이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개인의 안녕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Kim & Park, 2017) 이처럼 청년들

이 짊어진 고민과 불안은 혼란을 가중시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대인관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서 한국인이 보이는 토착적 특징은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다. Kim et al.(2003)은 한국의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결과로, 경제력,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립성, 사회·정치·문화 환경, 성취 및 자기수용, 대인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화목하다. 청년층의 경우, 행복의 삶의 구성 요인들을 충족시키는 데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행복감의 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곧 대인관계에 어려움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방치되고 반복될 경우, 지속적인 패턴으로 내재화되어 고착되고, 상실, 실패, 자기비판, 정서박탈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사고로 악화될 수 있다(Kim et al., 2011). 즉, 대인관계에 대해 역기능적인 양상을 보일수록 더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Hamamci & Esen-Coban, 2010). 청년기에 형성되고 유지되는 새로운 관계는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교와 사회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진정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는 자원이 부족하고 협업이 필수인 농업 사회로서, 협력이 생존에 유리한 요인이었다. 중년기인 40~50대는 이에 오래 적응해온 세대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익숙하다.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기는 하나 지금의 젊은층에게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비교적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람을 그리워하고 개인 간의 신뢰로운 관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통념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01). 중년기는 사회 및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하다(Seo et al., 2015). 성인의 경우, 직업에서의 성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Park & Kim, 2009), 이 시기는 삶의 목표를 성취해 가는 절정기로서, 전문성을 쌓고 사회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안정적인 지위와 자원을 획득하게 되어(McAdams et al., 1993)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Park & Kim, 2011).

그러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삶에 대한 무의미함 및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중년기 이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지은주, 2018). 이를 두고 중년기를 위기의 시기라고도 일컫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Choi & Kim, 2018; Emmons et al., 1998). 이들은 자신의 내·외적인 삶의 통합에 집중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비교적 확립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Kim & Park, 2017),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으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서 인생의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Choi & Kim, 2017; Lee & Lee, 2018).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Bandura, 1997),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Park & Kim, 2006). 즉,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중년기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Jung(1933)에 따르면, 중년기에는 외부에 집중되어 있는 외적자기를 내면의 내적자기와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진정성을 발휘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는 중년기를 경험하는 개인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며 조화롭게 지낸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반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며, 그 관계에서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한편, 지역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아니므로,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제약이 뒤따른다.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사하게나마 지역별로 대인애착 유형을 살펴본 Ric(2004)의 연구와 부모-자녀 관계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한 Park et al.(2013)의 연구에서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마련되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단어 선정과 활용 가치는 다양할 것이다. 단어를 통한 표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적합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단어의 친숙성 및 적절성 등의 기준은 이를 평가하는 대상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이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연령의 성인 집단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보다 익숙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측정하도록 하여 보편적인 단어 선정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척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단어라는 도구를 채택하였다. 대표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단어에 대한 친숙성과 적절성을 살펴봄으로써, 연령과 성별, 지역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진 대인관계 특성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특정한 관계에서 가장 많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즉, 단어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따른 대인관계의 경험 수준은 개인적,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서 그 영향이 크다. 물론, 한 문화권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문화적 차원에서 같거나 다르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복 연구를 통해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가 문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지 밝혀지면 문화적 적합성을 반영한 새로운 도구의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국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대인관계 모델 혹은 척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타 문화권과의 비교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본 도구를 활용하여 국가 간, 문화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면 한국인의 대인관계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 연구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선별한 단어와 주관적인 측정 결과 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관계를 맺어가는 만큼, 대인관계는 역동적이다. 이러한 관계를 순조롭고 만족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는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세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관계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지식 없이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적 상태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대인관계 도구는 전문가의 태도를 발달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인관계 단어 도구는 추후 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 분야 연구에 유용한 재료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대인관계가 정서, 성격 그리고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총체적인 대인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는 데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Ahn, B. H. (1985). Validation study for scales relating to interpersonal relations adequ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Ahn, S. H., Lee, S. H., & Kwon, O. S. (1993). Activation dimension: A mirage in the affective spa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1), 107-123.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1), 1-171. DOI: 10.1037/h0093360
- Averill, J. R. (1975). A semantic atlas of emotional concept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5, 330.
- Bae, S. M. (2015). Validat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adul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3), 51-65. DOI: 10.15703/kjc.16.3.201506.51
- Bandura, A. (1997). The anatomy of stages of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JHP*, 12(1), 8-10. DOI: 10.4278/0890-1171-12.1.8
- Baumeister, R. F., & Sommer, K. L.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 (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1), 38-44.  
DOI: 10.1037/0033-2909.122.1.38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Bush, L. E. (1972). Empirical selection of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7.
- Cho, H. J., & Bang, H. J. (2007). The aspect of change with the age of the relative ego. *Symposium on Basic Study and Development of Study Vibrations in the Second Year*.
- Choi, H. J., & Kim, Y. K. (2017). Trends analysis of researches on middle age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3), 519-539.
- Choi, H. S., & Ju, Y. A. (2020). The influ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and anger rumin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5(3), 585-610.  
DOI: 10.17315/kjhp.2020.25.3.008
- Choi, M. S. (2011).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mental health, perceived social support &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ccording to purpose in lif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2), 363-377.  
DOI: 10.17315/kjhp.2011.16.2.008
- Chung, N. W. (2004). Construction of the circumplex scales for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KIAS-40).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1), 37-51.
- Chung, N. W. (2005).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KIAS-40).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3), 583-598.
- Cross, S. E., Morris, M. L., & Gore, J. S.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3), 399-418.  
DOI: 10.1037/0022-3514.82.3.399
- Dong-A Librarian Editorial Office. (2019). *Korean Dictionary*. Seoul: Dong-A Publishing.
- Emmons, R. A., Colby, P. M., & Kaiser, H. A. (1998). When losses lead to gains: Personal goals and the recovery of meaning. In P. T. P. Wong & P.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63-178). Mahwah, NJ: Erlbaum.
- Erikson, E. (198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iske, A. P. (1992). The four elementary forms of sociality: Framework for a unified theory of social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99(4), 689.  
DOI: 10.1037/0033-295X.99.4.689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ng, H. H., Yeung, D. Y., Li, K. K., & Lang, F. R. (2009). Benefits of negative social exchanges for emotional closenes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5), 612-621. DOI: 10.1093/geronb/gbp065
- Gardner, W. L., & Gabriel, S. (2003).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al and collective interdependence*. The Psychology of Gender.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azda, G. M. (1977). *Human relations development: A manual for educators*. MA: Allyn & Bacon.
- Gilligan, C. (1993).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DOI: 10.1037/0022-3514.59.6.1216
- Gray, J. A. (1987). *The psychology of fear and stress* (Vol. 5). CUP Archive. Lond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hn, D. W. (1992). Ratings of usability, likability, and social desirability of personality-trait word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11(1), 147-171.
- Hahn, D. W., & Kang, H. J. (2000). Appropriateness and frequency of emotion term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19(2), 63-99.
- Hamamcı, Z., & Esen-Coban, A. (2010).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of late adolescence in adjustment to univers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300-304. DOI: 10.1016/j.sbspro.2010.03.014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o, I. A., & Rhee, M. K.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 between

- anxiety-avoidance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71-91.
- Hofstede, G. (1991). Empirical models of cultural differences. In N. Bleichrodt & P. Drenth (Eds.), *Contemporary issu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4-33). Berwyn, PA: Swets & Zeitlinger.
- Hong, Y. J., Nam, Y. E., & Lee, Y. H. (2016). Developing Korean affect word list and its app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7(3), 377-406. DOI: 10.19066/cogsci.2016.27.3.002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
- Jakubowski, P., & Lange, A. (1976). *Responsible assertive behavior: Cognitive, behavioral procedures for trainers*. Champaign, Illinois: Research Press.
- Jang, H. J., & Kim, Y. K. (2020). The development of the tool of representative emotional words to derive the emotional dimensions in the process of emotional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4(3), 29-58. DOI: 10.21193/kjspp.2020.34.3.002
- Jang, S. J. (2005). General survey of the Sogang University Students, 2004.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6, 175-203.
- Jung, C. G. (1933).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Kim S. H., & Park, G. H. (2010).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375-393. DOI: 10.15703/kjc.11.1.201003.375
- Kim, C. D., & Kim, Y. K. (2015). A theoretical study about the roles of emotional activation and repeated emotional acceptance in the counseling proc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6), 1-23. DOI: 10.15703/kjc.16.6.201512.1
- Kim, C. D., Kim, S. I., Kang, M. C., & Kim, Y. K. (2012). Validation of the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4), 1881-1901. DOI: 10.15703/kjc.13.4.201208.1881
- Kim, D. J., & Han, S. Y. (1997). Distribution of attachment 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al characteristics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1(2), 91-109.
- Kim, E. M., Koo, J. S., & Choi, S. J. (2003). Social representations of happiness in Korean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2003(1), 373-374.
- Kim, H. J. (2012).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62-7. DOI: 10.5977/jkasne.2012.18.1.062
- Kim, J. H., & Kim, Y. K. (2020). A study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in accordance with cluster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depressive vulnerability and adult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10), 29-52. DOI: 10.21509/KJYS.2020.10.27.10.29
- Kim, J. H., & Na, H. J. (2017). Effects of a positive psychotherapy program on positive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recovery in community-dwelling people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5), 638-650.
- Kim, J. Y., Shin, M. S., & Lee, Y. H. (2011).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early maladaptive schema. *Forum For Youth Culture*, 27, 40-60.
- Kim, M. S., & Kim, H. W. (2000). Analyses o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and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ubjective well-being(SWB) among Korean marri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5(1), 27-41.
- Kim, M. S., Kim, H. W., & Cha, K. H.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 Kim, M. S., Kim, H. W., Cha, K. H., Im, J. Y., & Han, Y. S. (2003). Development of happy life scale of Korea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2), 415-442.
- Kim, S. H., & Park, S. H. (2017). The relationship study on age difference between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satisfaction with 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level in life and satisfaction with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earch for meaning among 10's, 20's



- and 40'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1(1), 61-78.  
DOI: 10.21193/kjssp.2017.31.1.004
- Kim, U. C., & Park, Y. S. (2006).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2(5), 1-28.
- Kim, Y. M. (2016). Unequal pathways to adulthood: Inequality in labor market and family formation opportunities of young adults in Korea. *Social Science Review*, 47(2), 27-52.
- Krech, D., Crutchfield, R. S., & Ballachey, E. L. (1962). *Individual in society: A text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Kwon, S. M. (2004).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Seoul: Hakjisa.
- Kwon, S. M. (2018).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Seoul: Hakjisa.
- Kyung, I. S., & Tak, J. K. (2019). Effects of the group coaching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growth orient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on growth orientation, life satisfaction, perceived str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model of the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6(3), 231-263.  
DOI: 10.16983/kjsp.2019.16.3.231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Lee, H. S. (2018). Korean Dictionary. Kyeonggi-do: Minjoongseorim.
- Lee, J. U., & Lee, S. A. (2018).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ger on middle-aged women's mental health.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691-700.  
DOI: 10.35873/ajmahs.2018.8.1.068
- Lee, J. W., Song, H. J., Na, E. K., & Kim, H. S. (2008). Classification of emotion term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1), 85-116.
- Lee, M. Y., & Lee, H. C. (1990). The structural analysis of adjective meanings: Related to affective vocabulary.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 118-138.
- Lee, S. L., & Lee, M. H. (2014). Essential factor for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outcome: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mentalizing. *Journal of Human Studies*, 27, 95-139.
- Lee, Y. M., & Joeng, J. R. (2020).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1(1), 101-124. DOI: 10.15753/aje.2020.03.21.1.101
- Lim, J. S., Cho, H. J., & Jo, Y. J. (2014). A longitudinal model study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middle and older adults(over 50 years and over)- Focusing on the mediate effects of the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ulti-group analy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1), 181-207.
- Lothaller, H. (2010). On the way to life-domains balance: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In J. Tremmel (Ed.),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pp. 109-128). Heidelberg, Germany: Springer.
- McAdams, D. P., de St Aubin, E. D., & Logan, R. L. (1993). Generativity among young, midlife,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8(2), 221-230.  
DOI: 10.1037/0882-7974.8.2.221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Vol. 11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in, K. H., & Koo, J. S. (2002). The structure of Korean emotion words and the content analysis of emotions expressed in North Korean readers. *Journal of Sungkok*, 33(3), 287-351.
- Minjoongseorim's. Editorial department. (2018). *Essence Korean Dictionary*. Seoul: Minjoongseorim.
- Oh, E. J., Lee, S. Y., & Sung, K. M. (2013). Interpersonal relations, hop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s in early stage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491-500.  
DOI: 10.11111/jkana.2013.19.4.491
- Park, I. J., & Min, K. H. (2005). Making a list of Korean emotion terms and exploring dimensions underlying them.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109-129.
- Park, J. S., Kim, I. S., Hyun, M. H., & Yu, J. H. (2008). The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deficit, emotional express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somatization, depression and stress experience frequenc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3),

- 571-581. DOI: 10.17315/kjhp.2008.13.3.002
- Park, S. G., & Kim, S. J., & Moon, S. H. (2013). An analysis of regional disparities of youth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4), 199-224.
- Park, S. J., & Chung, C. S. (1998). Category-based dimensional model of affective word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2(1), 77-94.
- Park, Y. S., & Kim, U. C. (2011).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middle-aged women and men: Comparative analysis of housewives, working women and their spous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1), 65-108.
- Plutchik, R. (2003). *Emotions and life: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biology, and evolu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kos, R. F., & Schroeder, H. E. (1980). *Self-administer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Biomonitoring Applition.
- Rie, J. I. (2004). Attachment of the elderly peop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inter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2), 11-29.
- Roseman, I. J. (1984).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 A structural theory. *Review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 11-36.
- Ros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w, K. R., Bang, H. J., & Cho, H. J. (2007). Differences in relationship patterns according to the adult attachment and gender.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4), 471-490.  
DOI: 10.18205/kpa.2007.12.4.004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DOI: 10.2190/DUGG-P24E-52WK-6CDG
- Schlein, S., Guerney, B., & Stover, L.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tate College, PA.
- Schutz, W. C. (1958).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Rinehart.
- Seo, S. G., Jeon, J. H., An, J. S., & Chong, Y. S.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fli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parents and university student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971-990.
- Seo, S. K., Nam, Y. J., & Jin, K. H. (2009) *A study on the basic Korean vocabulary selection for teaching*. Seoul: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Language Information.  
DOI: 10.15842/kjcp.2015.34.4.006
- Sharry, J. (2007) *Solution-focused groupwork*. London: SAGE
- The Dong-A Ilbo[Website]. (2017, April4).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404/83675088/1>
- Wiggi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3), 395-412. DOI: 10.1037/0022-3514.37.3.395
- Wiggins, J. S., Trapnell, P., & Phillips, N. (1988). Psychometric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IAS-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3(4), 517-530. DOI: 10.1207/s15327906mbr2304\_8
- Yang, J. W., Park, N., & Chung, K. M. (2011).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n adolescents: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and peer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2), 475-495. DOI: 10.15842/kjcp.2011.30.2.007
- Yi, M. J. (2014). A study on the Korean emotional vocabulary education using corpus analysis - Focused on 'aswipda', 'seopseophada', 'akkapda'.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1(38), 383-402.
- Yun, H. G. (1975). Interactive attitudes and relationships. *Student Study*, 12(1).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Institute.

원고접수: 2021.06.16

수정접수: 2021.07.21

게재확정: 2021.07.26.

Appendix

Appendix. Mean and significance of familiarity and appropriateness of 83 interpersonal words

단어	친숙성			적절성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가까이하다	5.05	*		5.34	**	
가깝다	5.50	**	* (4<3)	5.49	**	
가소롭다	3.26	(***)		3.45	(***)	
가없다	4.14		*** (2<5)	4.25		
가정적이다	5.25		*** (2<4)	5.19		** (2<4)
가차없다	3.79	(**)	** (5<2)	3.84		
각박하다	4.04	(**)		4.01		
각별하다	4.90			5.19	*	
갈라서다	3.89	(*)		4.27		** (4<2)
감싸다	4.84			4.98		
거느리다	3.10	(***)	** (2<3)	3.39	(**)	
거만하다	4.05		* (5<3)	3.94		
거북하다	4.03			4.03		
걱정하다	5.36	**	*** (5<2)	5.35	**	
경계하다	4.09			4.30		
경멸하다	3.15	(**)		3.70		
경쟁하다	4.56	(*)		4.63		
고맙다	5.92	**		5.92	**	
공갈하다	2.52	(***)		2.89	(*)	
공감하다	5.54	***		5.52	***	
공격하다	3.93	(**)		3.93		
공들이다	4.14			4.43		
관심있다	5.52	**		5.56	**	
관여하다	4.43			4.60		
꽤쉽하다	4.21			4.12		
괴롭히다	4.11			4.20		** (5<2)
구박하다	3.98		** (2<3)	4.20		
권위적이다	4.13			4.34		
권태롭다	3.21		* (2<5)	3.70	*	** (4<2)
귀여워하다	5.31	***		5.31	***	
귀중하다	4.59		** (2<5)	4.82		
귀찮다	4.95		*** (5<2)	4.58		*** (5<3)
그림다	5.30			5.41	*	*** (4<3)
극찬하다	4.17			4.46	(*)	
극친하다	3.38			4.10		* (4<3)
기고만장하다	3.56			3.70		
기대다	4.81		*** (5<2)	5.05		** (5<3)
결끄럽다	4.34		** (5<3)	4.48		*** (5<2)

\*  $p<.05$ , \*\*  $p<.01$ , \*\*\*  $p<.001$  ( ) 속에 유의도가 표시된 것은 남성 평균치가 여성보다 높은 단어임.  
 2=20대, 3=30대, 4=40대, 5=50대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함.

Appendix. (Continued 1)

단 어	친숙성			적절성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끌어들이다	4.06			4.11		
끔찍하다	4.03	(*)		3.91		** (4<3)
나쁘다	4.87		*** (5<3)	4.65		* (5<3)
낙인찍다	2.82	(*)		3.13		* (4<2)
낮설다	4.88		** (5<3)	4.85		** (5<2)
낮익다	4.99			4.94		* (4<2)
냉정하다	4.75		** (5<3)	4.78		
너그럽다	5.00			5.25	**	
넘어뜨리다	3.29	(***)		3.20		
다가가다	5.05			5.20	**	
다정하다	5.48	**		5.59	**	
다투다	4.58		*** (5<3)	4.67	*	* (5<3)
뉘달하다	3.74			3.85		* (5<3)
단념하다	3.92			4.04		
단란하다	4.26			4.78	***	
담쌓다	3.68	(***)		4.20		** (5<2)
당하다	4.08		* (5<3)	3.90		
대견하다	4.93	**		4.91	**	
대등하다	4.08			4.68		
대우하다	4.29			4.73		
데면데면하다	4.07		** (5<3)	4.50		*** (5<3)
도와주다	5.50			5.47	**	
돌보다	4.70			4.83		
돌아서다	4.04	*		4.34		** (5<2)
동감하다	5.06	(*)		4.99		
동맹하다	3.23			3.78		* (4<2)
동무하다	2.77		*** (2<5)	3.44	*	
동정하다	3.96			4.17		
두렵다	4.24		** (5<3)	4.35		
뒤틀리다	3.32			3.69		
든든하다	5.40			5.42		
듬직하다	5.24			5.41		
따들리다	3.40	(**)		3.85		** (5<2)
따뜻하다	5.50	*		5.61	***	
딱하다	4.28			4.17		
떠나다	4.25		** (5<3)	4.38		** (5<3)
뜯기다	3.35	(**)		3.24		
뜯어먹다	3.27	(***)	** (5<3)	3.23		** (5<3)
막역하다	3.69	(*)	*** (2<3)	4.54		
만나다	5.53	*	*** (5<3)	5.52	**	
만만하다	4.31	(*)		4.30		
만족하다	5.32			5.33	*	
맞서다	3.89	(***)		4.04		
매정하다	4.13	(*)		4.36		*** (5<2)

Appendix. (Continued 2)

단어	친숙성			적절성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멀다	4.36	(**)		4.24		
멀리하다	4.45		** (5<2)	4.51		** (5<2)
멀어지다	4.60		*** (5<2)	4.64		*** (5<2)
멀시하다	2.96	(***)		3.55	(*)	
모질다	3.79	(**)		4.12		** (5<2)
못마땅하다	4.39			4.35		
무뚝뚝하다	4.76		*** (5<2)	4.75		** (5<2)
무시하다	4.45		*** (5<2)	4.50		** (5<2)
무심하다	4.50			4.63		
무자비하다	3.43	(***)		3.71		*** (5<2)
몽치다	4.64			4.77		
미심쩍다	3.89	(**)		4.08		
미안하다	5.48			5.33		
미워하다	4.81		*** (5<3)	4.90		
믿다	5.47		** (4<2)	5.53		
믿음직하다	5.45			5.50		
밀어주다	4.50	(**)		4.56	(*)	
밀접하다	4.12	(*)		4.54		
반갑다	5.70	*		5.72	**	
반하다	4.92			5.21		
방어적이다	3.49	(**)		3.97		** (5<3)
배려하다	5.44	*		5.52	***	
배신하다	3.92	(**)		4.26		** (5<2)
배척하다	3.04	(***)		3.58		*** (4<2)
버리다	4.20	(**)		3.94	(*)	
벽차다	4.21			4.24		
보고싶다	5.65	**	*** (4<3)	5.78	***	
보기싫다	4.54		** (5<3)	4.61		*** (5<2)
복수하다	3.61	**	** (5<2)	3.75		*** (5<2)
복종하다	3.11	***		3.54		
본받다	4.81			5.10		
부끄럽다	4.93		** (5<3)	4.82		
부담되다	4.77		** (5<3)	4.70		* (5<2)
부럽다	5.31			5.11		
부조화하다	2.85	(***)	** (2<5)	3.30		
분열하다	2.91	(***)	** (2<5)	3.26		
분하다	4.16	(*)	** (5<3)	4.03	(*)	** (5<2)
불만족하다	4.27			4.25		
불쌍하다	4.67		** (5<3)	4.51		
불친절하다	4.70		** (5<2)	4.73		
불편하다	4.97		*** (5<3)	4.86		
불화하다	2.84	(**)		3.36		
불효막심하다	3.17	(**)		3.64		

Appendix. (Continued 3)

단 어	친숙성			적절성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비교하다	4.68			4.47		
비꼬다	4.07		*** (5<2)	4.00		** (5<2)
비판하다	4.05	(***)		4.18	(*)	
빌붙다	3.52	(**)	** (5<3)	3.79		*** (5<3)
빼치다	4.68		*** (5<3)	4.42		*** (5<2)
사과하다	5.20			5.18	*	
사귀다	5.15		*** (5<2)	5.47		
사랑하다	5.62	**		5.84	**	
사로잡다	4.22			4.56		
사이좋다	5.56	***		5.76	**	
살갑다	4.88	***		5.03	***	
상냥하다	5.11	**		5.49	**	
쌌나다	4.21			4.43		
서먹하다	4.78		* (5<3)	5.01		*** (5<3)
서운하다	5.18		** (5<2)	5.12		*** (5<2)
설레다	5.11		*** (4<2)	5.24	*	* (4<2)
섬뜩하다	3.57	(*)		3.61		* (5<3)
속다	4.32	(**)		4.26		
속상하다	5.08	*		4.78		
속이다	4.19	(*)	** (5<2)	4.31		* (5<2)
수용적이다	3.60			3.88		
순종하다	3.48	(**)	** (2<5)	4.02		
시기하다	3.73			4.29		** (5<3)
시달리다	4.12	(**)		4.21		** (5<3)
시들하다	3.65			4.02		
실망하다	4.94		*** (5<2)	4.81		** (5<2)
싫다	5.12		*** (5<2)	4.92		*** (5<3)
싸우다	4.69		*** (5<2)	4.76		*** (5<3)
쌀쌀맞다	4.37		** (5<3)	4.59		*** (5<2)
아끼다	5.19			5.30		
악독하다	3.05	(**)		3.42		
안타깝다	4.99			4.77		
알짹대다	3.55	(*)		3.62		*** (5<2)
애꿎다	3.02			3.67		** (5<3)
애처롭다	3.90		** (2<4)	4.30		
야박하다	3.96			4.20		
야속하다	3.92	(*)		4.19	(*)	
약오르다	4.37			4.33		
얄밧다	4.72		*** (5<2)	4.62		*** (5<3)
양보하다	5.30		* (4<2)	5.26		
얄보다	3.93	(*)		4.09		*** (5<2)
어긋나다	4.04			4.36		** (4<2)
어렵다	5.21		** (5<3)	4.90		** (5<3)
어색하다	5.14		*** (5<3)	5.10		*** (5<2)

Appendix. (Continued 4)

단 어	친숙성			적절성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어울리다	5.46			5.44	**	* (5<2)
억울하다	4.72	(*)	*** (5<2)	4.52		
업신여기다	3.23	(***)		3.75	(**)	** (5<3)
역겹다	3.78	(***)	** (5<3)	3.70	(**)	** (5<3)
엮이다	4.22		*** (5<3)	4.23		*** (5<2)
엮치없다	4.24	(*)		4.18		
예쁘다	5.58	*		5.28		
오해하다	4.90		*** (5<2)	4.84		** (5<3)
외면하다	4.12	(**)		4.36		** (5<3)
용서하다	5.02			5.13		
우러러보다	3.70	(**)		4.24	(*)	** (4<2)
우호적이다	4.54	(*)	** (2<5)	5.07		
원만하다	4.98			5.24		
원망하다	4.26			4.43		*** (5<3)
원수지다	3.40			3.99		*** (5<2)
위하다	4.79			4.93		
의심하다	4.66		** (5<2)	4.52		** (5<2)
의중하다	4.12		*** (2<5)	4.99	**	
의지하다	5.14			5.25		
이기다	4.66			4.52		
인정하다	5.36			5.25		
자비롭다	4.10	(*)		4.65		
자상하다	5.31	***		5.38	**	
저항하다	3.46	(***)		3.65	(**)	
적대적이다	3.56	(*)		4.09		*** (5<2)
절교하다	3.75		** (5<2)	4.20		*** (5<2)
절절매다	3.47			3.89		*** (5<2)
절친하다	4.69			5.07	*	* (5<3)
정겹다	4.85	*		5.25	*	
정들다	5.33	**		5.45	*	
정떨어지다	4.58		*** (5<2)	4.53		
조중하다	3.34	(***)		3.57		
조화롭다	4.51			4.88		
존경하다	5.29			5.53		
존대하다	4.16			4.70		
존중하다	5.38	*		5.52		
좋아하다	5.83	***		5.86	**	
증오하다	3.64	(**)		4.11		*** (5<3)
지겹다	4.73		*** (5<3)	4.40		** (5<3)
지배하다	3.38	(***)		3.67	(*)	** (4<2)
질색하다	3.83			3.98		* (5<3)
질투하다	4.63		*** (5<2)	4.75		*** (5<2)
집착하다	4.36		*** (5<3)	4.50		*** (5<2)
짜증나다	5.00	*	*** (5<2)	4.73		*** (5<2)

Appendix. (Continued 5)

단 어	친숙성			적절성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전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짜사랑하다	4.27			4.72		*** (5<2)
총애하다	3.48	(*)	* (2<5)	4.20		
추종하다	3.16	(***)		3.70		** (4<3)
충성하다	3.81	(***)		4.33	(*)	
충실하다	4.34	(*)		4.61		
치열하다	4.05	(**)		4.15	(**)	
친절하다	5.65	**		5.62	*	
친하다	5.76	**	** (4<2)	5.70	***	** (4<3)
칭찬하다	5.63	**		5.50	*	** (2<5)
타산적이다	3.31	(***)	** (2<5)	3.78		
타협하다	4.57			4.66		
터놓다	4.85	***		4.93	***	
통하다	5.23	*		5.33	**	
편가르다	3.92			4.20		*** (5<3)
편들다	4.68			4.66		*** (5<3)
편안하다	5.62	*		5.63	*	
편애하다	4.10		** (5<3)	4.38		*** (5<2)
평화롭다	4.88			5.04		* (4<5)
포용하다	4.29		*** (2<5)	4.84	*	
피하다	4.57		** (5<2)	4.48		*** (5<3)
한심하다	4.51			4.14		** (4<3)
함께하다	5.44	*		5.61	***	
해치다	3.48	(**)		3.82		** (5<2)
행복하다	5.58	**		5.52	*	
헌신하다	4.33			4.72		* (5<2)
헤어지다	4.70		*** (5<3)	4.82		*** (5<3)
협오하다	3.79	(**)		3.84		*** (4<2)
협력하다	4.95			5.28		
호의적이다	4.93			5.26		
화나다	5.17		*** (5<2)	4.89		** (5<2)
화목하다	5.23			5.42		
화합하다	4.57		*** (2<5)	5.14		
효도하다	5.00			5.09		
후박하다	2.54	(***)	*** (3<5)	3.17	(**)	
홍보하다	4.06			4.16		
희생하다	4.61	(*)		4.80		